

#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sup>†</sup>

임 선 영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과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과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하며,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정 정서가 조절할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72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 정서조절곤란 및 자해 행동에 대한 3개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정 긴급성은 자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도 하지만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경로는 우울과 분노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지만 자해 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는 우울과 분노에 의해 조절되었다.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UPPS-P, 부정 긴급성, 정서조절곤란, 경계선 성격, 자해 행동

<sup>†</sup> 본 연구는 2014년 제1저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276, E-mail: yhlee@catholic.ac.kr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 불안정성, 불안정한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충동성 및 자해 행동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무분별한 운전이나 음주, 비자살적 자기 상해 행동(nonsuicidal self injury behavior), 자살 시도,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 등의 자기 파괴적 혹은 자해 행동(self-destructive or self-harm)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고 직업적 기능과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치료해야 한다. 이들의 자해 행동은 강렬한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되었고(Abramowitz & Berenbaum, 2007; Baumeister & Scher, 1988; Cooper, Agocha, & Sheldon, 2000; 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이에 부정 정서, 정서적 불안정성 및 정서조절곤란 등의 정서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Gratz, Tull, & Gunderson, 2008; Leible & Snell, 2004; Linehan, 1993; Yen, Zlotnick, & Costello, 2002). 자해 행동은 정서 관련 변인 뿐 아니라 충동성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겠으나, Barratt 충동성 척도 등의 기존 충동성 척도들은 인지적 요인과 운동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서적 압력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서 충동성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Evenden, 1999).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 등(2007)이 개발한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sup>1</sup>)에 포함된 부정 긴급성 요인은 기존의 충동성 척도가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던 정서 충

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정 긴급성은 강렬한 부정 정서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되며, 원저자들과 한국판 타당화 연구(임선영, 이영호, 2014, 2016)에서도,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충동성 요인이며 정서 관련 변인들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DeShong & Kurtz, 2013; Lynam, Miller, Miller, Bornovalova, & Lejuez, 2011; Miller, Flory, Lynam, & Leukefeld,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충동성 개념을 성격적 차원에서 통합하고자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 등(2007)은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을 개발하였다.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은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및 감각추구를 포함하는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은 기존의 충동성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서 충동성 개념이다. 부정 긴급성은 강렬한 부정 정서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이며, 긍정 긴급성은 강렬한 긍정 정서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긍정 긴급성은 주로 음주문제, 불법 약물 사용,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 및 도박 등의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yders et al., 2007; Zapolski, Cyders, & Smith, 2009). 부정 긴급성은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 및 공격성과의 상관성이 높고(Miller et al., 2003; Miller, Zeichner, & Wilson, 2012), 경계선

1)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Positive urgency의 두문자어

성격, 자해 행동 및 폭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행동과 강한 관련을 보이는 충동성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학생 집단과(DeShong & Kurtz, 2013; Miller et al., 2003)과 환자 집단 연구(Lynam et al., 2011)에서 경계선 성격은 부정 긴급성과의 높은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Lynam 등(2011)은 약물 및 알코올 중독센터에 입원 중인 76명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UPPS 4요인을 경계선 성격 특성과 함께 자살, 자해 행동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자살적 자해 행동과 자살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부정 긴급성과 계획성 부족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 긴급성과 계획성 부족이 동시에 높은 경우에 자살과 자해 행동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선영과 이영호(2016)의 연구에서도 부정 긴급성은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을 약 22.8%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충동성 요인이 입증되었다.

경계선 성격은 정서조절결함이 핵심적인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Linehan, 1993). Gratz와 Roemer(2004)의 자기 보고식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경계선 성격은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Leible & Snell, 2004), 정서의 비수용과 회피(Gratz et al., 2008; Yen et al., 2002), 회피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lbo et al., 2010). 대규모의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조절곤란의 세 가지 하위 차원(스트레스 상태에서 충동조절의 어려움,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의 제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은 경계선 성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ossati, Gratz,

Maffei, & Borroni, 2013). 그밖에 실험실 과제를 통해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행동적, 생리적 측정치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자각과 명료성의 부족(Levine, Marziali, & Hood, 1997),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추구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려는 자발성의 부족(Bornovalova, Gratz et al., 2008; 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06), 스트레스 맥락에서 행동 통제에서의 어려움(Chapman, Dixon-Gordon, & Walters, 2010), 낮은 심장박동 변동성(빈곤한 정서조절곤란 능력에 대한 생물적 지표) 등의 정서조절의 많은 차원들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Austin, Riniolo, & Porges, 2007; Kuo & Linehan, 2009; Thayer & Lane, 2000).

앞서 살펴본 충동성(부정 긴급성)과 정서적 요인(정서조절곤란 혹은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 중에서 경계선 성격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Linehan(1993) 등의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적 불안정성 혹은 정서조절곤란(emotional dysregulation)이 경계선 증상의 핵심적인 기저의 특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폭식, 물질남용, 위험 성행동, 자해와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대처하고 조절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고 있어 정서적 요인이 이들의 핵심적인 병인으로 설명한다. 부정적인 정서 상태의 존재는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충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실험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데,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통제집단과는 달리 좌절과 분개를 유도한 상황에서 충동성이 증가되었다

(Dougherty, Bjork, Huckabee, Moeller, & Swann,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의 정서조절곤란이나 정서적 불안정성 등의 정서적 요인이 충동성보다 자기 파괴적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충동성이 경계선 성격의 핵심 특징이며, 경계선 증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Bornovalova, Fishman, Strong, Kruglanski, & Lejuez, 2008; Zanarini, 1993). Links, Heslegrave와 van Reekum(1999)은 충동성이 경계선 성격의 가장 안정적인 특징이며, 경계선 정신병리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증명하였다. UPPS 하위 요인들과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의 특징(정서적 불안정성, 자해, 부정적인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Tragesser와 Robinson(2009)의 연구에서, 정서적 불안정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충동성은 전반적인 경계선 특징들과 고유한 관련성을 보였고, 자해 행동을 예언하는 것은 정서적 불안정성 관련 요인들이 아니라 부정 긴급성과 계획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정서적 불안정성과 충동성 모두가 경계선 성격의 증상과 특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New & Siever, 2002; Siever & Davis, 1991), 정서적 불안정성과 충동성 간의 상호관계를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에 미치는 충동성, 정서적 불안정성 혹은 각각의 기여나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충동성은 부정 정서 혹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상호작용하여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부정 긴급성이 부정정서와 상호작용

하여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며(Karyadi & King, 2011; Simons, Carey, & Gaher,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긍정 정서와의 상호작용이 보고되기도 하였다(Colder & Chassin, 1997). 최근 UPPS-P 척도를 이용한 Karyadi와 King(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문제에 대해서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 긴급성은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과 긍정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알코올문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긍정 긴급성이 높고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알코올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정 긴급성이 자해나 폭식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정서의 종류에 의해 차별적으로 조절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 긴급성과 더불어 부정 정서, 정서조절결함 등의 정서 관련 변인들은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인들이다.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 등(2007)이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을 개발한 이후로, 경계선 성격의 충동성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부정 긴급성은 정서조절능력의 취약성을 내포한 개인차 특성변인으로서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정서조절곤란 요인 각각의 관련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뿐 이들 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가정하여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부정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자해 행동을 실행하기도 하겠지만, 부정 긴급성이 높아지면 정서조절능력이 더욱 취약해져 정서조절곤란 상태에 이르고, 이런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 행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정 긴급성과 자해 행동과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할 것이다.
2.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정서에 의해 조절되며, 부정 정서의 종류(우울, 불안, 분노)에 따라서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와 자해 행동과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부정 정서에 의해 중재되는 부정 긴급성의 영향력이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거

쳐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증명된다면 중재매개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이는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모형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과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 정서가 조절할 것이라는 부정 정서의 조절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절효과 역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자해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에서의 상호작용 검증과 원리는 동일하나 매개효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상호작용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방법

### 참여자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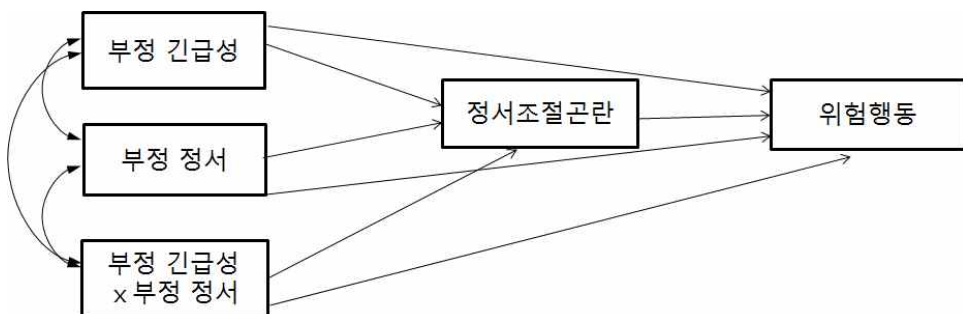


그림 1.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정서조절곤란 및 자해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휴식 시간에 설문지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누락된 정보가 많고 무작위 응답이 의심되거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2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2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총 312명(43.1%), 여자 총 411명(56.8%)이었다(1명 성별 정보 누락). 1학년은 369명(51%), 2학년은 174명(24%), 3학년은 113명(15.6%), 4학년은 66명(9.1%)이었다(2명 학년 정보 누락).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54세(표준편차=2.02)였고 연령의 범위는 18세에서 30세였다.

### 측정도구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 부정 긴급성.**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 등(2007)이 개발한 것을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를 사용하였다. UPPS-P 척도는 총 59문항으로,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및 감각추구 등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번호: 2(R), 7(R), 12(R), 17(R), 22(R), 29(R), 34(R), 39(R), 44(R), 50(R), 53, 58(R)).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동의한다', 2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 3점 '동의 하지 않는다', 4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범위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임선영과 이영호(2014)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긍정 긴급성 .92, 부정 긴급성 .85, 계획성 부족 .81, 지

속성 부족 .78, 감각추구 .84로 비교적 양호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alpha$ ) .83으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이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및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총 21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 특성 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에서, 특성 불안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김정택(197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특성 분노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1997)가 개발한 한국판 상태 특성 분노 척도 중에서 특성 분노 척도 10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성 분노 척도는 1점 ‘거의 전혀 아니다’에서 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사이에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분노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86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이 척도는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tz와 Roemer (2004)가 개발한 총 36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① 충동통제곤란, ②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③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④ 정서적 명료성 부족, ⑤ 정서조절전략접근 제한, ⑥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등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6개의 문항 중에서 11개는 역채점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 원판 DER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척도 .93이었고, 6개의 하위 척도 모두 .80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Gratz & Roemer, 2004). 조용래(2007)가 변안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이며, 하위 요인들에서 .84~.91로 나타났다.

**성격평가질문지 - 경계선적 특징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orderline Feature Scale; PAI-BOR).** 한국판 PAI는 Morey(1991)가 개발하고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과 홍상황(2001)이 국내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총 344문항,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 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척도 중 경계선적 특징척도(PAI-BOR) 24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 사이에 평정되는 4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PAI-BOR 척도는 정서적 불안정성, 정체감, 부정적인 대인관계, 자해 행동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Morey, 1991).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I-BOR 하위 요인들 중에서 자해 행동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총점 .80, 정서적 불안정성 .30, 정체감 .59, 부정적 대인관계 .32, 자해 행동 .69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와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 및 6개 하위 요인, 자해 행동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종속변인으로 자해 행동을 투입하고, 조절변인으로 우울, 불안, 분노 각각을 투입한 총 6개의 중재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와의 상호작용을 구성하기 전에 이 두 예측변인들을 평균 중심화된 점수를 구하고 이렇게 평균 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으로 사용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셋

제, 중재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표본을 약 1,000 회이상 반복 표집하여 단일점추정 통계치를 중심으로 상·하 95% 변화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추정된 구간 통계치가 영가설인 “효과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증하기 때문에 단일 점추정치에 의한 유의성 검증보다 더 안정적이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배병렬, 2011).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정서조절곤란 및 자해 행동 간의 상관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 정서조절곤란(6개의 하위 요인들) 및 자해 행동 측정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1). 먼저,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정 긴급성은 우울, 불안 및 분노 등의 부정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서 분노,  $r=.48$ ,  $p<.01$ , 불안,  $r=.48$ ,  $p<.01$ , 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우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39$ ,  $p<.01$ . 부정 긴급성은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 및

표 1. 다차원적 총동성 5요인과 측정치들간의 상관

	1	2	3	4	5-1	5-2	5-3	5-4	5-5	5-6	5-7	6	7
1. 부정 긴급성	-												
2. 우울	.39**	-											
3. 불안	.48**	.76**	-										
4. 분노	.48**	.31**	.36**	-									
5-1. 정서조절곤란 총점	.62**	.53**	.68**	.46**	-								
5-2. 총동통제곤란	.62**	.42**	.52**	.55**	.84**	-							
5-3.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24**	.21**	.33**	-.03	.36**	.07	-						
5-4.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41**	.38**	.47**	.33**	.78**	.60**	.01	-					
5-5. 정서적 명료성 부족	.43**	.46**	.55**	.34**	.71**	.58**	.22**	.55**	-				
5-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47**	.50**	.59**	.43**	.84**	.71**	.06	.69**	.59**	-			
5-7.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43**	.32**	.47**	.43**	.73**	.67**	.01	.51**	.42**	.63**	-		
6. 자해 행동	.62**	.40**	.41**	.43**	.57**	.59**	.20**	.41**	.45**	.44**	.40**	.34**	-

\* $p<.05$ , \*\* $p<.01$ .



충동통제 곤란,  $r=.62, p<.01$ ,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r=.47, p<.01$ , 정서적 명료성 부족,  $r=.43, p<.01$ ,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r=.43, p<.01$ ,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r=.41, p<.01$ , 및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r=.24, p<.01$ , 등의 6개 하위 요인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 긴급성은 자해 행동,  $r=.62, p<.01$ ,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자해 행동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자해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에 조

절변인으로 우울, 불안, 분노 각각을 투입한 3가지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

**부정 긴급성과 우울.** 연구모형에 우울 점수를 투입한 연구모형 1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긴급성의 경우, 자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43, p<.001$ , 와 정서조절곤란,  $\beta=.50, p<.001$ , 을 거쳐서 자해행동,  $\beta=.25, p<.001$ ,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부정 긴급성이 높아지면 즉각적으로 자해 행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정서조절곤란상태에 빠지는 과정을 거쳐서 자해 행동이 발

표 2. 연구모형의 간접(매개)효과 검증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low BC	upper BC
연구모형1	부정 긴급성 → 정서조절곤란 → 자해	.13	.172
	우울 → 정서조절곤란 → 자해	.08	.116
연구모형2	부정 긴급성 → 정서조절곤란 → 자해	.11	.155
	불안 → 정서조절곤란 → 자해	.14	.195
연구모형3	부정 긴급성 × 불안 → 정서조절곤란 → 자해	.02	.042
	부정 긴급성 → 정서조절곤란 → 자해	.15	.197
	분노 → 정서조절곤란 → 자해	.06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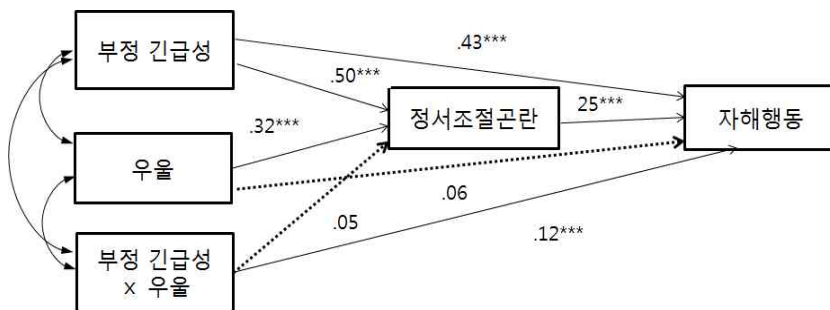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1과 표준화된 경로계수

실선은 유의미한 인과적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인과적 경로를 의미함.

\*\*\* $p<.001$ .

생하는 2가지가 경로가 확인되었다. 조절변인으로 투입된 우울감은 자해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조절곤란,  $\beta=.32, p<.001$ , 을 매개로 자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25, p<.001$ . 우울감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자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을 가는 두가지 매개경로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간접경로가 유의미하였다 (표 2). 부정 긴급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감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고,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 p<.001$ .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직접효과는 .427, 간접효과는 .126를 차지하여 총효과는 .553이다. 우울은 간접효과만 유의미하여 총효과 .080으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의 총효과가 우울의 총효과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 수준별 우울수준간의 자해 행동 정도의 비교.** 연구모형 1에서,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부정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울 수준은 자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정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해 행동의 정도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 긴급성과 불안

자해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연구모형에서 조절변인으로 불안을 투입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연구모형 2). 그 결과, 부정 긴급성은 자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43, p<.001$ ,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beta=.39, p<.001$ , 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9, p<.001$ . 불안은 자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beta=.49, p<.001$ , 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29, p<.001$ .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  $\beta=.08, p<.001$ , 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beta=.11, p<.001$ , 은 불안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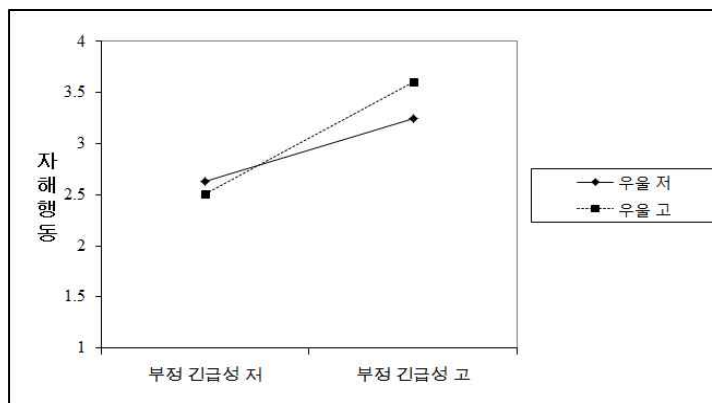


그림 3.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조절효과

확인되었다(그림 4).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자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 불안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 부정 긴급성과 불안간의 상호작용항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으로 가는 3가지 매개경로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표 2). 따라서 연구모형 2에서는 부정 긴급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중재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가 확인되었다.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직접효과는 .434, 간접효과는 .112를 차지하여, 총효과는 .546로 밝혀졌다. 부정 긴급성과 불안과의 상호작용의 직접효과는 .111, 간접효과는 .023으로 나타나, 총효과는 .134이다. 부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과 불안과의 상호작용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크며, 부정 긴급성의 총효과가 부정 긴급성과 불안과의 상호작용의 총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 수준별 불안 수준 간의 정서조절곤란 정도의 비교.**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부정 긴급성과 불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긴급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불안 수준 간에 정서조절곤란의 정도 차이가 약간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부정 긴급성 수준별 불안수준간의 자해 행동 정도의 비교.**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과 불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 불안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은 때 자해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정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자해 행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정 긴급성과 분노**

자해 행동에 대한 연구모형에 조절변인으로 분노 점수를 투입하여 경로모형을 탐색하였고(연구모형 3), 그 결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긴급성과 분노는 자해 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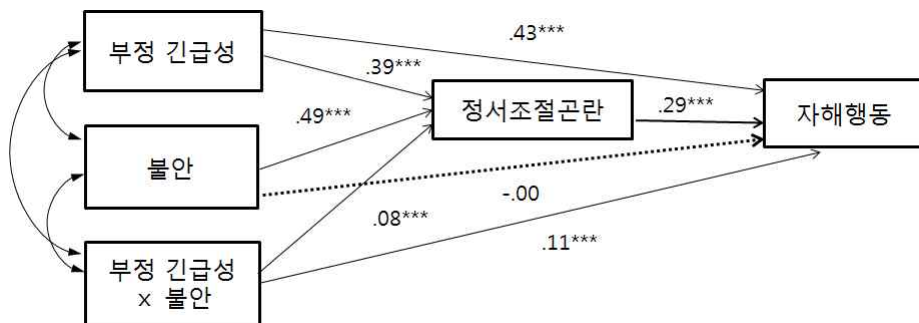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2와 표준화된 경로계수

실선은 유의미한 인과적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인과적 경로를 의미함.

\*\*\* $p < .001$ .

향을 미치며,  $\beta=.40, p<.001$ ,  $\beta=.10, p<.01$ ,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28, p<.001$ .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 분노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으로 가는 두가지 매개경로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표 2).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노감에 의해 조절되었지만,  $\beta=.06,$

$p<.05$ , 부정 긴급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분노감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모형 3에서도 매개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직접효과는 .395, 간접효과는 .145를 차지하여, 총효과는 .540로 밝혀졌다. 분노의 직접효과는 .095, 간접효과는 .057를 차지하여, 분노가 자해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152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과 분노의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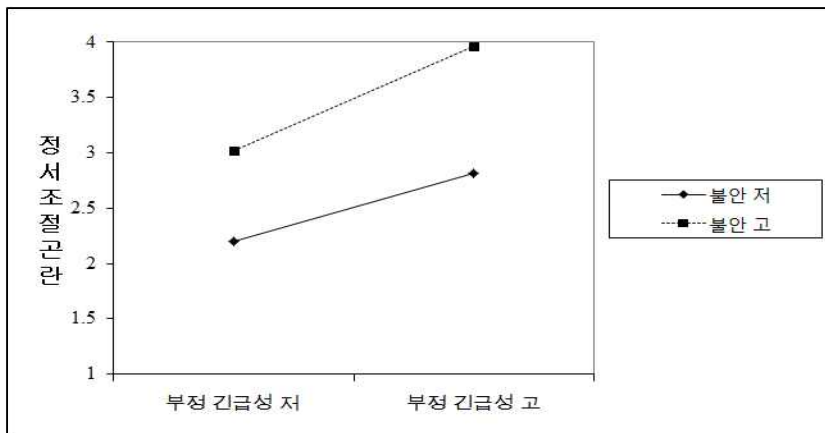


그림 5.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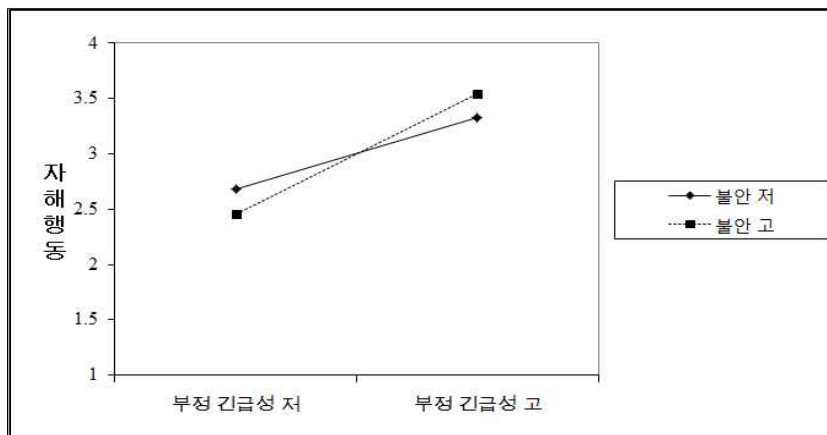


그림 6.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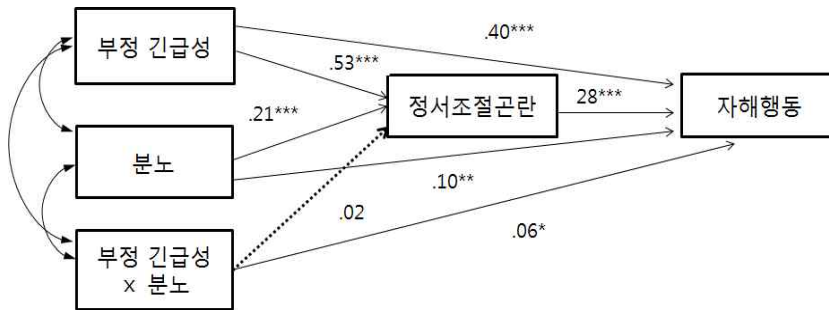


그림 7. 연구모형 3과 표준화된 경로계수

실선은 유의미한 인과적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인과적 경로를 의미함.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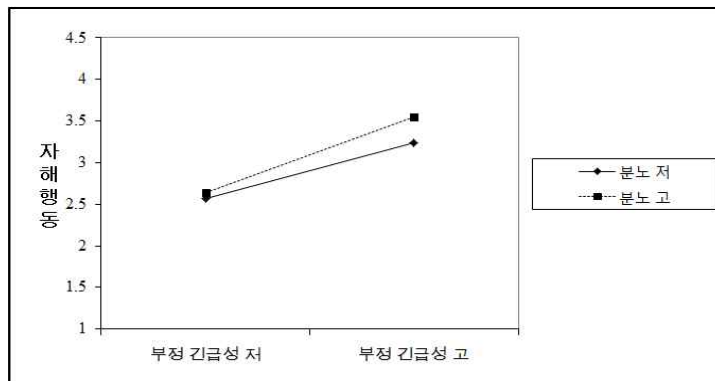


그림 8.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의 조절효과

효과가 간접효과보다 크고, 부정 긴급성의 총효과가 분노의 총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 수준별 분노 수준간의 자해 행동 정도의 비교.**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과 불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 분노 수준간의 자해 행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 분노 수준 간에 자해 행동의 차이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과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과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며,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부정 정서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우울, 불안, 분노), 정서조절 곤란 및 자해 행동에 대한 3개의 연구모형을 검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 및 6개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부정 긴급성은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 전체 점수와 6개의 하위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 긴급성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 부족,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및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등의 정서조절곤란 6개 하위 요인들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부정 긴급성 요인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이 부족하며,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조절전략의 제한적인 사용, 충동통제곤란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경계선 성향이 높은 집단(high BPD)은 통제집단(average & low BPD)에 비해 부정 긴급성과 정서조절곤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증명한 Fossati 등(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UPPS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를 연구한 D'Acremont와 Van der Linden(2007) 연구에 의하면, 충동성 요인들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부정 긴급성은 반추, 자기비난 및 과묵화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들과 고유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부정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조절능력의 취약성이 있어서 정서적 자극을 직면했을 때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명료성 부족, 비수용성 및 비효과적인 대처전략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자해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든 연

구모형에서 부정 긴급성은 자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도 하지만,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긴급성이 경계선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충동성 요인임을 입증한 이전의 연구결과(임선영, 이영호, 2016; DeShong & Kurtz, 2013; Lynam et al., 2011; Miller et al., 2003)를 경로분석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조명되지 못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역시 검증되어, 부정 긴급성은 정서조절능력을 취약하게 만들게 되고 이에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자해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셋째,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 역시 자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혹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경로가 확인되었는데, 우울과 불안은 자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지 못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분노는 자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거쳐 영향을 미쳤다. 즉,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해 행동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서조절곤란의 과정을 거쳐 자해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요인과 경계선 성격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이종환, 박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Fossati et al., 2013; Linehan, 1993). 또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가 직접적 혹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거쳐서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점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자해 행동이나 폭식과 같은 위험행동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동기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Abramowitz & Berenbaum, 2007; Baumeister & Scher, 1988; Cooper et al., 2000; Tice et al., 2001). 자해 행동은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 정서에 처할 경우에 이런 감정들을 완화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넷째,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라 조절 효과는 상이하였다. 우울과 분노의 경우,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에 우울과 분노가 투입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3에서는 부정 긴급성과 자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만 검증된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 투입된 연구모형 2에서는,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재매개모형이 증명되었다. 부정 긴급성이 높아질수록 불안감에 의해 정서조절곤란이 크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적 상황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취약하며, 특히 불안한 감정에 직면하는 경우에 높은 정서조절곤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충동성이 정서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며(Colder & Chassin, 1997; Karyadi & King, 2011; Simons et al., 2004), 부정 긴급성은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조절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Karyadi & King, 2011),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의 차별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부정 긴급성과 위험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자해 행동에 대한 두 가지 독립변인인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의 영향력을 함께 비교해 본 결과, 우울, 불안, 분노가 투입된 모든 연구모형에서 부정 긴급성의 총효과가 부정 정서의 총효과와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와의 상호작용의 총효과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과 정서적 요인 중에서 경계선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병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 중에서 충동성이 정서적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Tragesser와 Robinson(2009)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ornovalova et al., 2008; Links et al., 1999; Zanarini, 1993).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보다 부정 긴급성의 영향이 월등히 높아, 부정 긴급성은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충동성 요인이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모형에서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와의 상호작용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기제를 통해서 정서조절곤란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D'Acromont와 Van der Linden(2007)의 연구에서, 부정 긴급

성은 반추, 자기비난, 파괴화 등의 부적응적 정서 조절전략들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고하였고, Selby, Anestis와 Joiner(2008)의 연구에서도, 부정정서에 대한 반추적 전략이 정서적 흥수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부정 긴급성과 관련한 고유한 정서조절전략이나 대처방식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정서조절곤란에 이르는 상세한 기제와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이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횡단적 연구로서, 이 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우선성을 고려한 단기 종단적 연구 또는 실험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이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자해 행동 측정도구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해 행동은 경계선 성격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해 행동 요인만을 분석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해 행동의 종류나 빈도, 지속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자, 혹은 대학생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해서 이들의 실제 자해 행동을 종류나 빈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윤경(2009)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은 난잡한 성행동을 포함한 성적 이탈을 보이는 집단, 자해 및 자살시도를 보이는 집단, 두 가지 복합 증상을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하위 집단에 따라 충동성과 아동기 성 피해 경험 등에서 차이가 보고되었다. 또한 자해 및 자살시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을 비롯한 충동성과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Anestis & Joiner, 2011),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적 특징으로서의 자해 행동만을 검증하였으나, 청소년과 환자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경계선 성격에서 나타나는 자해 행동 발생 과정에서 부정 긴급성(정서 충동성)의 영향을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정서와 함께 확인해 본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 그동안 경계선 성격특성을 정서 조절적 관점에서 이해한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충동성, 정서조절곤란 및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해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부정 긴급성, 부정정서 및 정서조절곤란 변인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점과, 부정 긴급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부정정서에 의해 조절되며,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를 거쳐서 자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정 긴급성이 자해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 긴급성이 정서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예측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경로를 함께 확



인하여 정서조절 관점에서 자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겠다.

둘째,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에 대한 정서조절 관점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해 행동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경로는 동일하였으나, 우울, 불안, 분노는 상이한 경로를 보였고 부정 긴급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은 자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런 감정에 대한 조절곤란이 자해 행동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분노 감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자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바, 이들에게 분노는 더욱 감내하기 힘든 감정일 수 있겠다. 부정 긴급성은 불안감이 높아지면 정서조절곤란 상태가 크게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바, 부정 긴급성은 불안에 대해 특히나 취약하다. 따라서 부정 긴급성과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감정에 대한 주의, 자각 및 명료화하고 효과적인 정서대처전략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또한 정서 불안정성, 정서강도, 정서표현불능증, 고통감내력 등의 다른 정서조절 관련 변인들과 자해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자해 행동과 부정 긴급성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많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 경계선적 성격 성향을 가지는 대학생들의 자해 행동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부정 긴급성과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자해 행동에 대한 고위험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 정서와 별도로, 부정 긴급성 성향 자체가 자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서조절기능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서

부정적 정서 자극에 의해서 정서조절 실패에 따른 정서적 홍수상태에서 자해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에서 심각한 자해 행동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들에게 무엇보다 정서조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이 이들의 자해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또한 부정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자해 행동에 대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PAI 표 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11-329.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717-730.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종환, 박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43-565.
- 임선영, 이영호 (2014).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51-71.
- 임선영, 이영호 (2016).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의 준거 타당화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21(4), 791-814.
- 전검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 분노와 억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윤경 (2009). 경계선 성격장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아동기 성 피해 경험과 충동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639-650.
- Abramowitz, A., & Berenbaum, H. (2007). Emotional triggers and their relation to impulsive and compulsive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356-1365.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V)*. Washington, DC: Author.
- Anestis, M. D., & Joiner, T. E. (2011). Examining the role of emotion in suicidality: Negative urgency as an ampl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nd 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9*, 261-269.
- Austin, M. A., Riniolo, T. C., & Porges, S. W. (200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regulation: Insight from the polyvagal theory. *Brain and Cognition, 65*, 69-7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 Scher, S. J. (1988). Self-defeating behavior patterns among normal individuals: Review and analysis of common self-destructive tend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3-22.
- Beblo, T., Pastuszak, A., Gripenstroh, J., Fernando, S., Driessen, M., Schütz, A., ... Schlosser, N. (2010). Self-reported emotional dysregulation but no impair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 385-388.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ornovalova, M. A., Fishman, S., Strong, D. R., Kruglanski, A. W., & Lejuez, C. W. (200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he context of self regulation: Understanding symptom and hallmark features as deficits in locomotion and assess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22-31.
- Bornovalova, M. A., Gratz, K. L., Daughters, S. B., Nick, B., Delany-Brumsey, A., Lynch, T. R., ... Lejuez, C. W. (2008). A multimodal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ner city substance users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 717-726.
- Chapman, A. L., Dixon-Gordon, K. L., & Walters, K. N. (2010).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moderate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in response to a fear stress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pathology, 13*, 139-152.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I.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third edi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der, C. R., & Chassin, L. (1997). Affectivity and impulsivity: Temperament risk for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 83-97.

- Cooper, M. L., Agocha, V., & Sheldon, M. (2000). A motivational perspective on risky behaviors: The role of personality and affect regulatory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8*, 1059-1088.
- Cyders, M. A., Smith, G. T., Spillane, N. S., Fischer, S., Annus, A. M., & Peterson, C. (2007). Integration of impulsivity and positive mood to predict risky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positive urg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19*, 107-118.
- D'Acremont, M., & Van der Linden, M. (2007). How is impulsivity related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Evidence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30*, 271-282.
- DeShong, H. L., & Kurtz, J. E. (2013). Four factors of impulsivity differentiate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 144.
- Dougherty, D. M., Bjork, J. M., Huckabee, H. C., Moeller, F. G., & Swann, A. C. (1999). Laboratory measures of aggression and impulsivity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85*, 315-326.
- Evenden, J. L. (1999). Varieties of impulsivity. *Psychopharmacology, 146*, 348-361.
- Fossati, A., Gratz, K. L., Maffei, C., & Borroni, S. (2013).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additively predic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Italian nonclinical adolescent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7*, 320-333.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0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850-855.
- Gratz, K. L., Tull, M. T., & Gunderson, J. G. (2008). Preliminary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 550-559.
- Karyadi, K. A., & King, K. M. (2011). Urgency and negative emotions: Evidence for moderation on negative alcohol conseq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635-640.
- Kuo, J. R., & Linean, M. M. (2009). Disentangling emotion process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hysiological and self-reported assessment of biological vulnerability, baseline intensity, and reactivity to emotionally evocative stimuli.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531-544.
- Lieble, T. L., & Snell, W. E.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ultiple asp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393-404.
- Levine, D., Marziali, E., & Hood, J. (1997).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 240-246.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 Links, P. S., Heslegrave, R., & Van Reekum, R. (1999). Impulsivity: Core asp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3*, 1-9.
- Lynam, D. R., Miller, J. D., Miller, D. J., Bornoalova, M. A., & Lejuez, C. W. (2011). Testing the relations between impulsivity-related traits,

- suicidality,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test of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UPPS Model.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 151-160.
- Miller, J., Flory, K., Lynam, D., & Leukefeld, C. (2003). A test of the four factor model of impulsivity - related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1403-1418.
- Miller, J. D., Zeichner, A., & Wilson, L. F. (2012). Personality correlates of aggression: evidence from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UPPS model of impulsivity, and BIS/B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 2903-2919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ew, A. S., & Siever, L. J. (2002). Neurobiology and genetic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nals*, 32, 329-33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i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Selby, E. A., Anestis, M. D., & Joiner T. E. (2008).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Emotional cascad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593-611.
- Siever, L. J., & Davis, K. L. (1991).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on the personali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647-1658.
- Simons, J. S., Carey, K. B., & Gaher, R. M. (2004). Lability and impulsivity synergistically increase risk for alcohol related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Drug Alcohol Abuse*, 30, 685-694.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hayer, J. F., & Lane, R. D. (2000). A model of neurovisceral integration in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1, 201-216.
- Tice, D. M., Bratslavsky, E., & Baumeister, R. F. (2001). Emotional distress regulation takes precedence over impulse control: If you feel bad, do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3-67.
- Tragesser, S. L., & Robinson, R. J. (2009). The role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UPPS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 370-383.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669-689.
- Yen, S., Zlotnick, C., & Costello, E. (2002). Affect regulation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693-696.
- Zapolski, T. C. B., Cyders, M. A., & Smith, G. T. (2009). Positive urgency predicts illegal drug use and risky sexual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 348-354.
- Zanarini, M. C. (1993). BPD as an impulse spectrum disorder. In J. Paris (E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tiology and treatment* (pp. 67-8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25일

논문심사일: 2017년 7월 17일

게재결정일: 2017년 8월 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3, 565 - 585

---

# The Effects of Negative Urgency, Negative Affec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on Self-Harm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un-Young Lim      Young-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ffect (depression, anxiety, anger) through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self-harm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total of 724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UPPS-P-Negative Urgency, 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DERS),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 Scale (PAI-BOR). After testing 3 research models, negative urgency directly predicted self-harm behavior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S) mediated the influence of negative urgency on self-harm behavior. The influence of negative urgency on self-harm behavior or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kinds of negative emotion that was being experienced(depression, anxiety, anger). The influence that negative urgency had 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S) was not moderated by depression and anger, but the influence of negative urgency on self-harm behavior was moderated by depression and anger. However, the influence of negative urgency on self-harm behavior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S) was moderated by anxie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future research suggestions.

*Keywords:* UPPS-P, negative urgency, emotion regulation difficulty, self-harm behavi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